

THE ENGINE OF
KOREA
HANYANG
UNIVERSITY

2017 한양대학교 ERICA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1
II. 진행 절차 및 방법	3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3
(2)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3
(3) 2017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4
III.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6
(1) 출제전	6
(2) 출제과정	6
(3) 출제이후	7
(4) 금년도 개선 사항 요약	9
IV. 문항 분석 결과 요약	11
V.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8

표 목 차

[표 1] 2017학년도 한양대 ERICA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	1
[표 2] 201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4
[표 3] 대학별고사 시행 관련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6
[표 4] 2017학년도 한양대 ERICA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논의내용	8
[표 5] 2017학년도 한양대 ERICA 대학별고사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	12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는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였다. 수시에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논술전형, 재능우수자(실용음악, 체육일반) 등의 고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시에서는 예체능계열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정시 가군에서 디자인, 체육, 무용 그리고 정시 나군에서 실용음악 등의 고사를 실시하여 총 8번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하는 2017학년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선행학습영향평가에서는 예체능 실기고사를 제외한 '논술전형의 논술고사'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필답고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	인문·상경	국문	1~2	-	0	0	0								
		자연	수리	1~3	1~4				0							
	재외국민과 외국인	인문·상경	영어	2~31	-										0	
			국어	2~31	-	0										
		자연	영어	2~31	-										0	
			수학	2~26	-					0						

[표 1] 2017학년도 한양대 ERICA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논술전형

먼저 전년도에 진행되었던 전형과의 변화된 부분은 논술고사를 통해 선발하는 전형의 수 및 인원이 감소하였다. 전년도에 실시했던 논술고사에서는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전형], [논술 전형] 두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했었지만 2017학년도에는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전형이 폐지됨에 따라 논술고사를 통해 논술 전형 학생들만을 선발하게 되었다. 논술전형 지원자들의 지원계열에 따라 문제유형이 달랐으며, 인문·상경계열 지원자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국문논술에 응시하였고, 자연계열 지

원자는 3개의 대문항으로 구성된 수리논술에 응시하였다. 국문논술과 수리논술 모두 모집단위에 의해 시간대를 나누어 각 2회씩 시험을 실시하여 국문논술 오전/오후, 수리논술 오전/오후 등 총 4가지 유형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정원의 특별전형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필답고사는 객관식 유형의 시험으로 논술전형과 마찬가지로 지원자들의 지원계열에 따라 응시과목에 차이가 있었다. 영어 필답고사는 전체 지원자의 공통과목이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계열 지원자마다 1개 과목을 추가적으로 응시해야 했다. 인문·상경계열 지원자는 국어과목을, 자연계열 지원자는 수학과목에 응시하였다.

영어와 국어필답고사는 각 31문항, 수학은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든 과목 문제는 4지 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이었다. 또한 객관식문제의 특성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동일한 문항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한 A형 문제지, 그리고 B형 문제지 두 유형으로 출제하였다. 즉, 재외국민 필답고사의 경우 각 과목별로 A형과 B형의 문제지가 존재하여 총 6가지 유형이 있지만 출제된 내용은 동일하므로 각 과목별(영어, 국어, 수학)의 A형 문제지를 기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진행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각 대학은 2015학년도 신입학전형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하여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참여 유무와는 별개로 신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모든 대학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서울과 ERICA 등 2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캠퍼스의 입학전형은 각 캠퍼스에 별도의 입학처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캠퍼스의 신입학전형을 위해 두 캠퍼스 모두에 적용되는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한양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은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사를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부터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출제 전문가와 함께 고교 교육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함께 위촉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차년도 대학별 고사 개선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총12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그리고 간사 1인을 제외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9인을 위촉하였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이며, 부위원장은 입학부처장, 그

리고 간사는 입학팀장으로 한다. 내부위원 4명은 우리대학 교수로서 다년간의 출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며, 외부위원 5명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각 과목별 교육과정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특히, 외부위원의 경우 우리 대학이 위치한 인근 지역(서울, 경기지역)의 일반고 교사를 위촉하였다. 이는 우리대학의 논술 난이도와 실제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노력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우리대학 논술전형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논술지도 담당 교사를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는 대학별고사 출제전 뿐만 아니라 고사 종료 이후에도 재차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여부를 분석하여 개선사항 확인 및 차년도 전형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3) 2017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의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여부 및 선행학습 유발요인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시기	내용
2016.3.29.(화)	출제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2016.4.1.(금) ~ 4.29(금)	교육과정 교육
2016.5.2.(월) ~ 5.31(화)	모의고사 문항 출제
2016.6.7.(화) ~ 6.13(월)	자문회의
2016.6.27.(월) ~ 7.23.(토)	모의고사 실시 및 채점
2016.7.22.(금)	201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필답고사 실시
2016.10.1.(토) ~ 2.(일)	2017학년도 논술전형 논술고사 실시
2017.2.1.(월)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위촉
2017.2.1.(수) ~ 17.(금)	대학별 고사 문항 분석
2017.2.1.(수) ~ 3.24.(금)	보고서 작성
2017.2.24.(금)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2017.3.31.(금)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시

[표 2] 2017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먼저, 2017학년도 신입학 전형 중 가장 먼저 대학별고사가 실시되었던 전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필답고사로 2016년 7월 22일에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 수시 논술고사, 수시 실용음악 실기고사, 수시 체육일반 실기고사, 정시 가군 스포츠과 학부 실기고사, 정시 가군 무용예술학과 실기고사, 정시 가군 디자인대학 실기고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정시 나군 실용음악 실기고사를 마지막으로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가 종료되었다.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총 8번의 대학별고사가 실시되었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의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체능 실기고사를 제외한 재외국민 필답고사, 논술고사에 한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별 고사 시행과 관련하여 이행 사항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여부이다. 2017년 3월 31일 현재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양식과 목차에 따라 문항 총괄표, 문항카드 등을 통해 충실히 작성한 “2017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공지하고 있다. 또한,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유무에 대해 교내구성원 뿐만 아니라 외부위원으로 현직 고교교사들을 포함하여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및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0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0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0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0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0
		⑥ 현직 고교교사 포함 여부	0

[표 3]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 출제 전

2016년 3월경에 각 계열별 우리대학 출제위원과 교사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2017학년도 논술전형과 재외국민전형 출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문항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우리대학 교원으로 각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다년간의 문항 출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으로 위촉하였으며, 교사 자문위원은 수도권 일반고에서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분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새롭게 바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위촉하여 다회간의 회의 및 연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4월부터 출제위원들에게 ①변경되는 교육과정 및 수능 출제범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②문항 유형 확정 및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하였다. 모의고사 문항 개발 이후 각 계열별로 출제진과 교사 자문위원이 문항내용을 숙지 한 후 ③회의를 열어 문항의 적절성, 체감 난이도, 교육과정 사용 용어, 제시문 내용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확인 및 문항 수정을 하였다. 수정 이후 확정된 문항을 통해 인근의 5개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④모의고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지는 수거 후 출제위원들의 ⑤채점 및 첨삭 과정을 통하여 학생수준에서의 문항의 적절성과 학생들의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다시 한번 ⑥문항 출제, 자문회의,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문항들에 대한 ⑦학생들의 이해도, 난이도, 채점 방법 등에 대한 방향을 확정했다. 그리고 모의고사 종료 후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⑧출제전에 교육과정에 개편되면서 변경되거나 가르치지 않는 개념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입소하였다.

(2) 출제 과정

출제 입소 전에 출제진과 교사 자문위원의 회의를 통해 2017학년도부터 변경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완료하고 우리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대한 파악을 완료하였지만 실제로 사용될 문항 ①출제과정에서도 문항 적절성, 난이도 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하여 출제위원과 함께 검토위원으로서 고등학교 교사가 함께 입소하였다.

검토위원은 사전에 출제위원들과 함께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및 회의를 진행

했던 ②일반고 교사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각 계열별로 전년도 검토위원의 2배로 증원하여 서로 대조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의 문항 출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년도인 2016학년도 출제과정에 비해 검토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출제과정과 출제이후 모두 문항을 검토하여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③출제과정에서는 출제위원들의 문항 출제와 동시에 출제된 문항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검토위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사전에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의 문항 출제를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④인쇄 전에 의견 공유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문항이 완성된 이후에는 각 문항별로 문항카드를 작성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 외 출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다. 실제 출제과정에서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교 교육과정 외 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항을 발견하여 재출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검토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출제 이후

고사 종료 이후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재확인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전에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들에게 각 계열별 문항카드를 교육하여 내용숙지를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각 계열별 회의를 진행하였다.

국어과목은 재외국민전형과 논술전형 문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문항들의 출제근거의 명확성과 함께 우리대학 지원자들에 대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재외국민전형의 경우에는 주로 해외에서 고교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응시하게 되는데 고교교육과정 수준에서 적절하게 문항을 출제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검토위원이 제시한 의견 중 해외에서 주로 학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에 대해 고전 과목에서의 출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고전과목에서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어가 들어가지 않은 지문을 활용하였기에 체감난이도는 적절했을 것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몇몇 문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이전에 발행된 EBS교재에서 지문을 발췌 인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선택교육과정이며, 그에 따라 국가수준에서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성취기준을 취사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문 활용 및 성취기준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사례로 판단하였다.

수학과목도 재외국민전형과 논술전형 문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문항들의 출제근거의 명확성과 함께 우리대학 지원자들에 대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학과목은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교과목명이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루는 개념들에 대한 변화가 크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검토위원들은 재외국민전형의 경우 해외에서 학습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지나치게 어렵지 않은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자연계열 지원학생들이 수학시험에 응시하지만 인문계열 과목까지 함께 출제하였기에 체감하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논술전형의 경우 고교 교육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수학 용어를 문항에서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견과 함께 출제과정에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시각차가 존재하여 수정된 문항이 있었다고 하여 수학의 경우 검토위원 역할을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진 문항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되었으며 적절한 변별력을 갖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영어과목은 재외국민전형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며 각 문항들의 적절성과 출제근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재외국민전형 지원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했다. 예외적으로,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해외고교 출신자 또는 영어를 한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가 각각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들에게는 큰 특징이 없는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형	과목명	논의내용
논술전형	국문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교육과정 수준 적절한 문항 지원자 수준에 적절한 문항
	수리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수학 용어의 적절한 사용 출제과정 중 검토교사의 역할 중요성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어 필답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교육과정 수준 적절한 문항 고전과목 출제에 대한 적절성 여부 교육과정 개편 이전의 EBS 교재 지문 사용의 적절성 여부
	수학 필답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렵지 않은 난이도 자연계열 과목 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과목 함께 출제함으로써 부담 경감
	영어 필답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지 않은 체감 난이도 평이한 수준

[표 4] 2017학년도 한양대 ERICA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논의내용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출제위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검토위원 포함)을 대상으로 고교교육과정연수 및 출제과정에 대한 개선점을 확인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로, “출제전 사전연수를 통한 고교 교육과정 이해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연수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 이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출제 입소시 검토위원으로 고교 교사가 입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모두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해 검토위원이 함께 입소하는것이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사 종료 이후 출제된 문항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출제된 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89%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여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모두가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금년도 개선 사항 요약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는 대학별고사 문제 출제시 고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고교 교육과정 내 문제 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학년도에는 출제위원과 자문교사들의 회의를 통해 고교교육과정을 교육했으며,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교과서와 EBS문제를 함께 배포하였다. 또한 실제 출제과정에도 고교교육과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출제과정에 참여하였다.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적용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3월부터 논술고사가 실시된 10월초까지 약 7개월 동안 ①**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출제위원과 교사 자문위원이 함께 의견을 공유해나가는 기회를 만들어서 문항의 수준, 적절성, 용어, 제시문 등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수정된 문항으로 ②**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채점, 첨삭을 진행하여 채점 방향 설정 및 체감 난이도 피드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③**지역별 간담회**를 통하여 논술고사 문제, 출제의도, 출제근거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각 지역 교사들의 피드백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 출제 입소전에 수능 출제범위, 과목명, 다루지는 개념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 뒤

검토위원과 함께 입소하였다. 또한 입소 이후에는 ④검토위원들이 문항에 대한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여러 단계로 실시함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고사 종료 이후 ⑤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열어 각 과목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들이 올해 실시된 고사의 기출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 및 난이도 등에 대하여 확인 후 2018학년도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IV. 문항 분석 결과 요약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실시한 대학별고사 중에서 논술전형의 논술고사,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필답고사 등 2개의 대학별 고사만이 선행학습영향평가 분석 대상이다.

논술전형은 논술 60%와 학생부 교과성적 40%로 선발하며 지원 계열에 따라 다른 응시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인문·상경계열 지원자는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국문논술에 응시해야 하며, 자연계열 지원자는 수학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리논술에 응시해야 한다. 각 계열별 지원자는 지원 학과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시험에 응시했으며 그에 따라 각 계열별로 시간대에 따른 2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국문논술은 총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전 문제는 국어 II, 독서와 문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화법과 작문을 바탕으로 출제되었으며 오후 문제는 독서와 문법,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수리논술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 안에는 소문항이 포함되어있어 소문항 기준으로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오전 문제는 기하와 벡터, 미적분 I, 미적분 II, 수학 II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출제되었으며 오후 문제는 기하와 벡터,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재외국민전형은 필답고사 100%로 선발하며 지원 계열에 따른 다른 응시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인문·상경계열 지원자는 국어와 영어 필답고사를, 자연계열 지원자는 수학과 영어 필답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국어와 영어는 객관식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학은 객관식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국어문제는 고전, 국어I, 국어II, 독서와 문법, 문학, 화법과 작문을 바탕으로 출제하였으며, 수학문제는 기하와 벡터, 미적분 I, 미적분 II,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에서, 영어문제는 심화 영어 회화 I, 실용 영어 I, 실용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 영어 II에서 출제되었다.

논술고사와 재외국민 필답고사 모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문항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번호	하위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	인문·상경	오전 1	-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생활과 윤리	0	문항 카드1
			오전 2	-	국어 II 윤리와 사상	0	문항 카드2
			오후 1	-	사회·문화 독서와문법	0	문항 카드3
			오후 2	-	독서와 문법 윤리와 사상	0	문항 카드4
		오전 1	1-1 ~ 1-4	미적분 I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0	문항 카드5	
		오전 2	2-1 ~ 2-2	기하와 벡터	0	문항 카드6	
		오전 3	3-1 ~ 3-2	확률과 통계 수학 II	0	문항 카드7	
		오후 1	1-1 ~ 1-4	기하와 벡터	0	문항 카드8	
		오후 2	2-1 ~ 2-2	미적분 II	0	문항 카드9	
		오후 3	3-1 ~ 3-2	확률과 통계	0	문항 카드 10	
	재외국민과 외국인	인문·상경	2	-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0	문항 카드 11
			3	-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0	문항 카드 12
			4	-	독서와 문법	0	문항 카드 13
			5	-	독서와 문법	0	문항 카드 14
			6	-	화법과 작문	0	문항 카드 15
			7	-	국어II	0	문항 카드 16

			8	-	문학 국어I	0	문학 카드 17
			9	-	문학 국어II	0	문학 카드 18
			10	-	독서와 문법	0	문학 카드 19
			11	-	독서와 문법	0	문학 카드 20
			12	-	독서와 문법	0	문학 카드 21
			13	-	문학 고전 국어I	0	문학 카드 22
			14	-	문학 국어II	0	문학 카드 23
			15	-	문학 독서와 문법	0	문학 카드 24
			16	-	문학 국어II 독서와 문법	0	문학 카드 25
			17	-	독서와 문법	0	문학 카드 26
			18	-	독서와 문법	0	문학 카드 27
			19	-	독서와 문법	0	문학 카드 28
			20	-	독서와 문법	0	문학 카드 29
			21	-	문학 국어II 고전	0	문학 카드 30
			22	-	문학 국어II 독서와 문법 고전	0	문학 카드 31
			23	-	독서와 문법 국어I	0	문학 카드 32
			24	-	문학 독서와 문법	0	문학 카드 33
			25	-	문학	0	문학

			국어II		카드 34
	26	-	문학 국어II	0	문항 카드 35
	27	-	독서와 문법	0	문항 카드 36
	28	-	독서와 문법	0	문항 카드 37
	29	-	독서와 문법	0	문항 카드 38
	30	-	국어II 독서와 문법	0	문항 카드 39
	31	-	화법과 작문	0	문항 카드 40
	2	-	수학 II	0	문항 카드 41
	3	-	수학 II	0	문항 카드 42
	4	-	미적분 I	0	문항 카드 43
	5	-	미적분 II	0	문항 카드 44
	6	-	기하와 벡터	0	문항 카드 45
	7	-	확률과 통계	0	문항 카드 46
자연	8	-	수학 II	0	문항 카드 47
	9	-	수학 II	0	문항 카드 48
	10	-	수학 II	0	문항 카드 49
	11	-	수학 II	0	문항 카드 50
	12	-	수학 I 수학 II	0	문항 카드 51
	13	-	미적분 I	0	문항

				카드 52
	14	-	수학 II	0 문항 카드 53
	15	-	수학 II	0 문항 카드 54
	16	-	수학 I	0 문항 카드 55
	17	-	기하와 벡터	0 문항 카드 56
	18	-	미적분 I	0 문항 카드 57
	19	-	확률과 통계	0 문항 카드 58
	20	-	확률과 통계	0 문항 카드 59
	21	-	수학 II	0 문항 카드 60
	22	-	수학 II	0 문항 카드 61
	23	-	미적분 II	0 문항 카드 62
	24	-	미적분 II	0 문항 카드 63
	25	-	미적분 II	0 문항 카드 64
	26	-	기하와 벡터	0 문항 카드 65
	2	-	실용 영어 II	0 문항 카드 66
	3	-	영어 I	0 문항 카드 67
	4	-	영어 독해와 작문	0 문항 카드 68
	5	-	영어 독해와 작문	0 문항 카드 69
	6	-	영어 I	0 문항
	공통			

				카드 70
7	-	영어 독해와 작문	0	문항 카드 71
8	-	실용 영어 I	0	문항 카드 72
9	-	영어 II	0	문항 카드 73
10	-	영어 II	0	문항 카드 74
11	-	영어 II	0	문항 카드 75
12	-	영어 I	0	문항 카드 76
13	-	영어 II	0	문항 카드 77
14	-	영어 II	0	문항 카드 78
15	-	영어 II	0	문항 카드 79
16	-	영어 I	0	문항 카드 80
17	-	영어 II	0	문항 카드 81
18	-	영어 I	0	문항 카드 82
19	-	영어 I	0	문항 카드 83
20	-	영어 II	0	문항 카드 84
21	-	영어 II	0	문항 카드 85
22	-	영어 II	0	문항 카드 86
23	-	영어 II	0	문항 카드 87
24	-	영어 II	0	문항

						카드 88	
			25	-	영어 II	0	문항 카드 89
			26	-	영어 I	0	문항 카드 90
			27	-	영어 I	0	문항 카드 91
			28	-	심화 영어 회화 I	0	문항 카드 92
			29	-	심화 영어 회화 I	0	문항 카드 93
			30	-	영어 II	0	문항 카드 94
			31	-	영어 II	0	문항 카드 95

[표 9] 2017학년도 한양대 ERICA 대학별고사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V.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는 각 전형별 모집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2017학년도 신입학에서 다양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해왔으며, 그 중 우리대학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별 고사인 논술고사와 재외국민 필답고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원자들의 선행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5학년도 고사부터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사 실시 이후에는 그 문항과 관련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의존 없이 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각 지역별 교사들에게 논술고사 문제와 그 출제의도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 가능한 고사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2017학년도 개선노력

2017학년도 고사에 대한 준비는 2016년 3월 ①출제위원과 교사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예년에 비해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우리대학 동문교사들이 아닌 우리대학에 지원을 많이 하는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을 위촉하였으며 모의고사 출제부터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까지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출제위원은 지속적으로 문항들을 출제해왔던 우리대학 교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교사 자문위원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출제부터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의 중요성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②모의고사 실시를 위해 출제한 문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와 실제 학생들의 답안지 확인, 채점, 첨삭과정을 통하여 대학과 고교의 눈높이를 서로 비슷하게 맞출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③실제 출제과정에서도 출제위원이 출제를 맡고 검토위원이 검토를 맡아 서로의 시각대로 토론 및 수정작업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항을 출제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④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열어 검토위원으로 입소했던 교사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출제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올해 출제된 문항에 대한 고교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되었다는 결론과 함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2018학년도 개선계획

2018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전형은 201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논술고사와

재외국민 필답고사 등의 2가지 대학별고사이며 내년도에도 올해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①더욱 심도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및 공유를 계획하고 있다. 모의고사 출제에 앞서서 ②출제위원들에게 교과목명, 교과서 등에 대한 사전 교육 후 모의고사를 출제할 예정이다. 또한, 출제 이후 자문위원들과 논의 후 ③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 및 문항의 평균성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고사 출제에는 ④전년도보다 검토위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함께 입소하여 문항출제과정부터 채점방향까지 확정하고자 한다. 특히, 출제과정에 있어서 검토위원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그 내용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모든 수시 및 정시 전형이 종료되는 2월에는 ⑤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열어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까지 한자리에 모여 차년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